

지식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e-Korea 건설의 해로 삼아야



안 병 엽
정보통신부 장관

친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희망에 찬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21세기를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좋은 꿈과 새로운 설계로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특히 연휴기간 중에도 우편물 소통을 위해 애써주신 일선의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뜻깊은 새 출발의 날을 맞이해 저는 올해가 우리 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꿈과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4년째인 올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꾸준히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의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를 전망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과제의 수행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바꾸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완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 또한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50년대, 60년대를 돌이켜보면 보릿고개란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일찍 떨어져 결국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장리쌀을 받아 덜 여문 보리에 섞어 죽을 쑤어 먹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인구는 70~80% 가량 늘었습니다만 국토는 거의 늘어난 게 없

습니다. 그래도 생산량이 넘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오히려 공급초과로 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농기계화, 새로운 품종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빛을 내 산업 설비를 들여와 공장을 건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만 불 가까운 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것은 결국 마음을 합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민의 통합이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전달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통신가족 여러분들은 정보통신부를 필두로 모든 기관이 합심해서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의 구조 개혁을 지원하고, 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가 전반의 지식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e-Korea 건설”을 올해의 정책 운영 방향으로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각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통신 인프라를 세계적으로도 아주 빠른 속도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합니까? 이제 이를 기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Business, e-Government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각 부처를 독려하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이 솔선 수범해야 합니다. 정보화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보화를 주장하고 인터넷을 주장하지만 아직 행동은 아날로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정보통신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을 수반하는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타 부처를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등의 업무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업무는 관계 부처에 넘겨주고,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창출하고

관계 부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관계자를 교육하여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산업 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봅시다.

산업혁명이 처음부터 자본재 수요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면직물산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소비재산업으로부터 시작해 소비재 관련 자본재 산업으로 전파되면서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도 소비재 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정보화를 통해 관련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싸게 하고 품질을 좋게 하여 정보화 수요를 촉발시키는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정보통신망을 경쟁체제를 도입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중복과잉투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시장실패에 적절히 대처하여 관련 문제들을 원만히 조정하면서 초고속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가입자망을 고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분야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 기술발전은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전반에 폭발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작년에 이미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했습니다. 이 선행연구의 의미는 각 분야별로 우리가 경고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관련 부처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관계부처에 던져줌으로써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킹 등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디자인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과 신 산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특

히 50대 이후는 전환교육도 힘듭니다. 심지어 대졸자까지도 장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사회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산업사회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 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e-Korea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것은 시장을 확대시켜줄 것입니다. 이 시장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적절한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력양성, 실업 재교육,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사 협력에 의해 우정사업 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어느 산업분야보다 선도적으로 IT로 무장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내실있는 발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유념해 전국에 깔려있는 우체국 망을 잘 활용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기존 영역은 효율화해서 강한 경쟁력을 갖춘 우정사업본부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린 과제들은 우리 모두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창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왜 하는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과장, 사무관 등 실무진들은 지시한 메뉴얼에 따라 단순하게 집행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체질화함으로써 행정의 목적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과 힘을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